

제주도연구회 약사

전 경 수*

제주도연구회는 1978년 2월 김영돈·장주근·전경수·정영화·진성기·현길언이 발기인이 되어 창립을 결의하고, 동년 3월 28일 창립총회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기대학교에서 가졌다. 초대회장에 장주근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고, 6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1988년 11월 25일 현재 16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제주도에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열기를 진작시키고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키 위하여 1978년 3월 28일 창립총회와 함께 시작한 연구발표회는 현재 35회에 이르고 있으며, 발표회의 장소는 제주와 서울에서 열렸다.

일년에 한번씩 회원의 연구결과와 제주도관계 연구자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1985년 11월 15일과 16일에 제 1 회를 실시한 전국대회는 현재 4회에 이르고 있다. 이 전국대회는 매년 제주신문사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제주도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은 두 가지가 있다.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연락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제주도연구회보”는 1984년에 제 1 호가 시작되어, 현재 통권 7호까지 발간되었다. 본연구회원들의 연구업적과 제주도에 관한 연구를 집적하는 “제주도연구”는 1984년에 제 1 집을 발간한 이후 1987년도에 제 4 집을 발간했고, 현재 1988년도를 위한 제 5 집의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 1 집 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연구”의 발간경비는 제주도 소재 “현오학술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충당되었다.

* 서울대

제주도연구회가 출범한 이후 역대회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대와 제 2 대(1978년 3월 28일 부터 1982년 4월 23일 까지)에는 장주근 회장, 제 3 대(1982년 4월 23일 부터 1985년 5월 25일 까지)에는 한상복 회장, 제 4 대(1985년 5월 25일 부터 1987년 5월 1일 까지)에는 오홍석 회장, 제 5 대(1987년 5월 1일 부터 현재까지)에는 김영돈 회장이다.

현재의 임원진은 회장에 김영돈, 부회장에 신행철·이인규, 간사에 고부자·이청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연구회가 탄생될 때의 일화 한가지를 소개한다. 필자가 대학원 학생일 당시 1975년 봄에 국립민속박물관의 개관작업에 분주하신 장주근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제주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장선생님은 필자에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던 이즈미교수가 지은 “제주도” 한권을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를 하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책은 30페이지 가량이 인쇄가 되지 않은 결본이었다. 후일 그 인쇄되지 않은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원본을 뒤지는 과정에서 제주도관계 서적을 많이 알게 되었다.

1977년 여름 부터 제주도를 연구하는 동학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장주근 선생님과 필자 사이에 있었고, 1977년 가을 대구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전국대회 장소에서 여섯명이 모임을 발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막상 회를 조직하기로 약속하고 보니, 회의 명칭을 정해야 하는데, 장주근 선생님은 “제주도연구동호인회”라는 명칭을 거론하셨고, 필자는 “제주도학회”라는 명칭을 거론하였다고 기억된다. 매사에 꼼꼼하시고 빈틈이 없으신 장선생님께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디시려는 것 같았다. 결국 창립총회에서 양자의 중간 정도를 택한 것이 “제주도연구회”라는 명칭이라는 기억이 올바른 것 같다.

1978년 3월 28일 경기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으로 장주근 교수를 선출하고, 제 1회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장주근 회장께서 멀리 제주에서 오신 창립회원들을 위하여 주머니를 털어야 했었다. 그 이후 연구발표회를 위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장이 소담하게 모

인 회원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주머니를 털어서 소주잔이라도 기울일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가난한 본 연구회의 전통처럼 되어 버렸던 것 같다.

당시 주위에서는 “뭐 그런 연구회가 다 있느냐?”하는 의아스런운 표정과 “별 회한한 연구회도 다 있네”하는 빈정거림도 있었다. 어떤 연구발표회 때에는 회장과 간사 그리고 발표자만 발표회장에 모인 때도 있었다. 필자는 연구회가 창립되던 그해 7월에 미국유학길에 올랐고,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었다. 그후 회장이신 장주근 교수와 필자의 후임으로 간사를 맡았던 이기욱씨가 연구회를 이끌어 가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일화가 제주도연구회에 관여한 한분 한분에 의해서 쌓여서 제주도 연구회의 산 역사가 꾸며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줄고를 쓴다.

(1988년 11월 27일, 제주도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